

2020
Seoul National Cemetery
Vol.97

충혼

그 해
6월의 기억

6·25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 열린
호국추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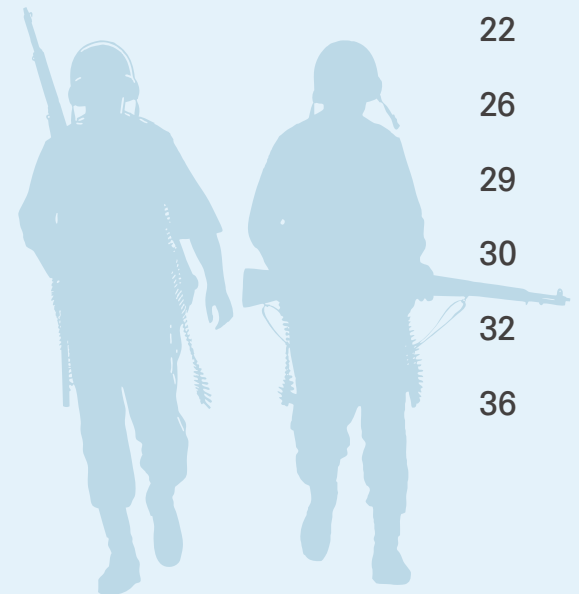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목차

CONTENTS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트로트 열풍 - 6·25전쟁 관련 트로트	04
영화로 만나는 6·25전쟁	08
총칼보다 더 치열했던 소리 없는 전쟁, 삐라	12
그날을 기억하는 전국의 주요 전적 기념관	16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현충탑	20
6·25전쟁 공군사 인포그래픽 시리즈 -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22
6·25전쟁 관련 서울현충원 기념비와 헌시	26
현충원 소식	29
바뀌는 보훈 정책, 보훈 정책의 미래	30
독자의 소리	32
현충원 이용안내	36



발행처

국립서울현충원
(0698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TEL 02-813-9625
www.snmb.mil.kr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트로트 열풍

● 지금은 트로트 시대입니다.

‘내일은 미스트롯’, ‘내일은 미스터트롯’부터 유산술의 ‘사랑의 재개발’까지 촌스럽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좋아도 좋다고 말하지 못했던 트로트가 이제는 TV,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들립니다. 최근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서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트로트의 인기는 1년 새 5.8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에 머물렀던 트로트의 인기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트로트 장르 음원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으며 세대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트로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전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으며 세대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트로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 트로트 음악의 역사는 깊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실은 트로트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무려 100년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리듬과 남도 민요의 영향을 받은 ‘떠는 창법’을 특징으로 하는 트로트는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미국의 춤곡 ‘폭스트로트(Foxtrot)’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의 다양한 음악이 혼합되었고, 유구한 세월을 견뎌 한국 고유의 가요 장르가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그 기원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반복적인 노랫말과 귀에 쏙 박히는 가락, 한국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장르입니다.

● 트로트는 항상 우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백만 명이 남쪽을 향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활동하던 대중음악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한국 대중음악인들의 창작 열은 꺼질 줄 몰랐기 때문에 트로트 곡이 계속 발표되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피난이 시작되어,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국민들은 트로트를 부르면서 잃어버린 고향, 가족, 사랑을 떠올렸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전쟁하는 동안 많은 전쟁 가요들이 만들어져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애창곡으로 남겨져 있지요. 이번 기사에서는 6·25전쟁 당시 대표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트로트를 통하여 전쟁 당시의 생활상과 희로애락을 다시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신라의달밤』 현인



2) 『단장의 미아리 고개』음반 (최숙자 외, 오아시스레코드)

6·25전쟁 관련 트로트 플레이리스트

◀ ▶ ⏮ ⏭

군세아라 금순아		현인
전우야 잘자라		현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해연
님 계신 전선		금사향
이별의 부산 정거장		남인수
아내의 노래		심연옥
전선야곡		신세영
전선의 하룻밤		신세영
내 아들 소식		권정애
삼팔선의 봄		최갑석
전선 소야곡		이예성
일선의 오빠		차은희

6·25전쟁 관련 트로트



굳세어라 금순아

작곡 박시춘 | 작사 강사랑 | 노래 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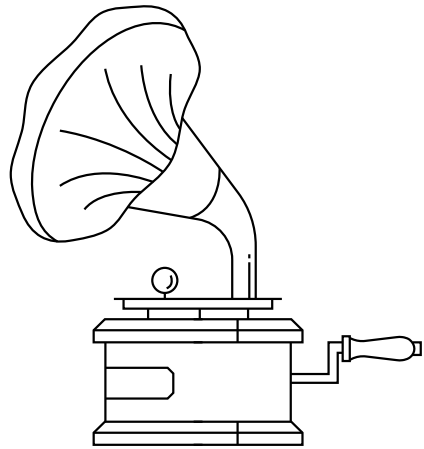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 누구나 한 번쯤은 흥얼거렸을 법한 노랫말과 가사, 영화 ‘국제시장’의 OST로도 사용되었던 유명한 노래이지요. 가사 곳곳에는 ‘흥남 부두’, ‘일사(1·4후퇴)’, ‘국제시장’, ‘영도다리’ 등이 들어가 있어 당시의 시대를 쉽게 연상할 수 있기도 합니다. 목젓을 툇툇 떠는 듯한 독특한 창법과 음색으로 당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가수 현인이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1·4후퇴와 흥남 철수로 인한 후유증이 고스란히 밀어닥친 부산과 대구의 가난한 피난민들의 모습에서 착상을 얻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노랫말이 만들어지고 작곡가 박시춘이 즉시 곡을 만들었고 곧바로 현인이 오리엔트 다방에서 창문에 겹겹이 담요를 치고 녹음을 하였는데, 곡이 만들어지고 음반이 나오기까지 하루가 안 걸렸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 연인과 생이별하고 피난지에서 장사치로 일하고 있는 노래 속의 화자는 흥남 부두에서 헤어진 ‘금순이’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굳세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절절한 가사와는 달리 노랫가락은 경쾌하고 구성진 것이 이 곡의 특징입니다. <굳세어라 금순아>는 음반이 나오자마자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만 장 넘게 팔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우야 잘 자라

작곡 박시춘 | 작사 유호 | 노래 현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초등학교 시절 고무줄 줍했다는 여학생 중에 이 노래를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유명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출연자 할머니가 진행자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발견되는 마을에서 할머니가 불러주신 ‘전우야 잘 자라’는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작사가 콤비는 ‘낭랑 18세’를 만든 박시춘/유호입니다. 작사가 유호는 6·25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부역에 동원되며 어렵게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돌아온 작곡가 박시춘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전쟁과 통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박시춘이 ‘군인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곡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철모도 쓰지 않고 형겅으로 만든 작업화에 총 한 자루만 가지고 있던 국군 병사를 목격했던 유호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단숨에 노랫말을 썼고, 박시춘은 즉석에서 기타를 치며 곡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전우야 잘 자라’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수 현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곡은 군인은 물론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작곡 박시춘 | 작사 호동아 | 노래 남인수

이 노래는 6·25전쟁 이듬해인 1954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낯선 부산 땅에서 피난살이를 마치고 피난지의 추억을 간직한 채 부산을 나면서 이별의 순간을 그린 노래입니다. 가사 중에는 ‘피란살이, 판잣집, 경상도 사투리, 목 메인 기적 소리’ 등이 등장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이 고향을 찾아, 부모를 찾아, 자식을 찾아 부산을 떠났습니다. 전쟁 이전 부산의 인구가 40만이었었는데, 피란살이 시절에는 200만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의 인구가 이들이 다시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서 부산역은 이별의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피란통에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연인의 절절한 감정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작곡 이재호 | 작사 반야월 | 노래 이해연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트로트의 새로운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송가인이죠. 송가인이 결승전 마지막 무대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송가인의 한이 몰아친 무대에서 몇 마디의 독백만으로 관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송가인의 연기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지만,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가지고 있는 가사 속 애환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6·25전쟁 휴전 후인 1956년 발표된 트로트 곡입니다. 제목의 ‘단장(斷腸)’은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사가 반야월은 전쟁 중 피난길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이 담긴 이 곡에는 6·25전쟁 시 퇴각하던 북한군에 납치당해 가족과 생이별하고 미아리 고개를 넘던 사람들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 속 ‘눈물고개’라고 하는 미아리 고개는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과 돈암동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본래 미아동은 ‘두루 펼쳐진 언덕’이라는 뜻의 예쁜 이름으로 원효대사가 창건한 미아사에서 유래하였는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너무 유명해져서 미아리 고개가 슬픔, 눈물과 한의 고개로 각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성북구청이 ‘미아동’이라는 동명을 바꾸려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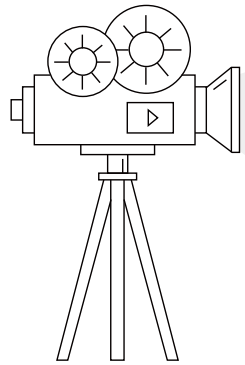


님 계신 전선

작곡 박시춘 | 작사 손로원 | 노래 금사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평화공원에는 ‘님 계신 전선’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2014년 6월 24일 세워진 이 비는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가수인 금사향을 기념하여 세워졌습니다. ‘님 계신 전선’은 금사향이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육군 제1훈련소 군예대 활동당시에 취입한 노래로 이 곡을 녹음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10시간 정도 걸려 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금사향 유공자는 ‘위문 공연 도중 죽더라도 국가에 보상을 받지 않겠다’라는 ‘먹물도장’의 각서까지 찍어가며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노래 속의 화자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님 계신 전선을 떠올리며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 님이 용감하게 싸우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여담이지만 가수 금사향은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로 시작되는 노래 ‘홍콩 아가씨’를 부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영화로 만나는 6.25전쟁



네 편의 한국전 관련 영화를 골랐다.

일단 접근성이 높은 작품들을 택했는데, 이 중 한국영화인 [피아골]과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아일라]와 [낙동강전투: 최후의 고지전]은 VOD로 감상이 가능하다.

· 글 영화평론가 듀나

이강천의 [피아골]은 1955년 작으로, 이 중 가장 제작 시기가 빠르다. 지리산 빨치산들이 주인공이니, 심지어 촬영 당시 현재진행형이었던 이야기이다. 이 영화가 지리산에서 촬영 중이던 때 여전히 빨치산이 암약하고 있었고, 당시 주민들이 분장한 배우들을 실제 빨치산으로 착각하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이들의 촬영조건도 빨치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음식 재료가 부족해 물김치와 밥으로만 때워야 했고 마지막엔 필름이 떨어져 자투리 필름을 이어붙여 촬영을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주연배우 허장강과 김진규는 모두 촬영장을 떠났다가 실제 빨치산으로 오인당하여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다.

당시 전북 경찰국 공보과 경위였던 김종환이 아이디어를 내고 각본에 참여한 영화의 내용은 사실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하다. 한 무리의 지리산 빨치산들이 토벌대의 공격에도 살아남아 버티고 있다. 반공 영화이니, 이들 상당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양민학살범이다. 그리고 대부분 영화 속 악당들이 그렇듯, 이들은 자기 무리에게도 가혹하다. 따지고 보면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토벌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고, 이들의 이야기는 서로에 대한 불신 속에서 자멸하는 과정이다. 결국 모두가 죽고 여자 주인공 애란 혼자만 살아남아 투항한다.

당시 한국전쟁 소재 영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공 영화였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대부분 훌륭한 선전 영화들이 그런 것처럼 영화는 메시지를 초월한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의도한 메시지가 좋은 이야기를 만들려는 욕망에 묻힌 것이다. 반공 영화의 악당 캐릭터와 입체적인 갈등이 필요한데, 이러다 보니 영화는 점점 지리산의 지옥에서 파멸해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 결과 만들어진 작품은 쉽게 잊을 수 없는 한국 영화의 걸작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빨치산 소재로 휴머니즘이 넘치는 걸작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반공영화로 보기 곤란하므로 치안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예정되었던 개봉이 취소되었고 개봉 여부를 두고 맹렬한 논쟁을 벌였다. 영화는 결국 개봉되었지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 『피아골』 포스터 사진

다음에 고른 영화는 [낙동강 전투: 최후의 고지전]이다. 제목만 보면 최근 한국 영화처럼 들리지만 안소니 만이 감독한 1957년 작 할리우드 영화이고 원제는 [Men in War]이다. 로버트 라이언, 알도 레이 주연. 그리고 나중에 [전투]로 스타가 된 빅 모로가 조연으로 출연했다. 여담이지만 빅 모로는 80년대에 임권택의 한국전 영화 [아벤고 공수군단]에 출연하기도 했다.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한국전 영화는 그리 많지 않다. 없는 건 아닌데,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많이 감상 되지도 않는다. 미군의 관점에서 보아도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지만, 할리우드는 이 전쟁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테렌스 영의 악명높은 1982년 작 [오, 인천!] (이를 할리우드 영화로 친다면 말이지만) 이후로 할리우드에선 한국전 소재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

그래도 몇몇 기억할만한 영화가 있다. 여기서 가장 다루고 싶었던 작품은 1951년에 사무엘 풀러가 만든 [철모]인데, 유감스럽게도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다루지 못했다. 더글러스 서크 감독, 록 허드슨 주연의 [전송가]는 한국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딘 헤스 대령의 한국 전쟁의 체험을 다룬 이야기인데, 아리랑의 멜로디가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테마로 쓰인 희귀한 예이다. 소위

‘추억의 영화’ 팬이라면 윌리엄 홀든 주연의 [원한의 도곡리 다리]를 기억할 텐데, 이 영화의 한국 비중은 앞의 두 영화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전쟁 영화 애호가라면 그레고리 펙 주연의 [포크 찰 힐]을 전쟁의 참화를 냉정하게 그린 하드보일한 영화의 사례로 기억할 것이다.

한국 관객의 관점에서 이들 영화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들 대부분은 할리우드 근방에서 찍었고 한국으로 보이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제작진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심각하게 떨어진다.

[철모]의 경우는 정말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 미국인들이 부족한 예산과 한 줌의 지식으로 미지의 나라를 재구성하려는 투쟁이 보여 오히려 재미있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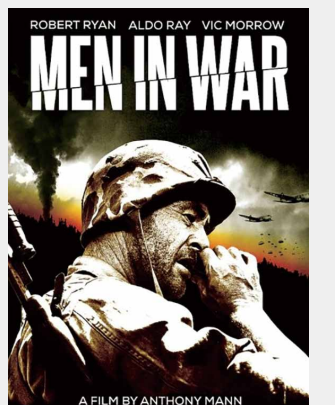
국내 제목만 보면 [낙동강 전투: 최후의 고지전]은 역사적 사건의 재현 같지만 아니다. 심지어 이 영화의 원작인 반 반 프라그 Van Van Praag의 [Day Without End]는 원래 배경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각색 과정 중 은근슬쩍 한국전으로 무대가 바뀐 것이다.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50년 9월 6일. 낙동강 근방에 고립된 미군 소대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전투 중 정신줄을 놓은 대령을 지프에 태우고 방황하는 하사관을 만난다. 우선순위가 다른 두 무리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다. 하지만 사방

에서 북한군이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둘은 억지로라도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전쟁 영웅의 화려한 액션을 기대하면 안 된다. 전쟁의 낭만화는 없다. 전장은 끔찍한 곳이고 양편의 군인 대부분은 모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맞는다. 거대한 목표는 날아가고 유일하게 중요한 건 생존과 귀환이다. 아마 이 영화의 각색자들은 프랑스의 노르망디보다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지도 알 수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 거칠고 냉정한 이야기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쓰인다.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어딘가였을 배경은 한국의 흔적이 티끌만큼도 없고 북한군들은 죽기 전엔 얼굴도 보기 힘들다. 자막에서 북한군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모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비속어였다. 아무리 미군이 주인공이라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한국이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2) 『낙동강전투 : 최후의고지전』 포스터



피아골



돌아오지 않는 해병

그렇다면 가장 원형적인 한국전 영화는 무엇일까? 이만희의 1963년 작 [돌아오지 않는 해병]과 강제규의 2004년 작 [태극기 휘날리며] 중 하나를 고르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로 반공 전쟁 영화의 전형성에 가장 가까운 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고, 반공 이데올로기의 방해와 검열 없이 분단의 비극을 보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건 [태극기 휘날리며]다. 두 작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고르기로 한다. 옛날 영화지만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접근성도 [태극기 휘날리며]보다 살짝 높다. 무엇보다 아직 실제 전쟁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고르는게 맞는 것 같다.

영화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해병 대원들을 따라간다. 이들은 북한군에게 어머니를 잃은 영희를 구출해 마스코트로 삼는다. 서울 수복 뒤에도 복진한 이들은 크리스마스 이틀 전 짧은 휴가를 즐기지만 결국 밀려오는 중공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전선에 투입된다.

앞에서 전형성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는 한국전을 다룬 한국 전쟁 영화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있다. 특히 원본에 대한 지식 없이 자주 패러디되는 '죽어가는

병사의 장황한 마지막 인사' 같은 것들 말이다. 단지 원본을 보면 느낌이 달라진다. 60년대 영화이니 장황한 감상주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마지막 인사'는 의외로 캐릭터의 개성이 뚜렷하고 아이러니가 풍부하며 진부함과 거리가 멀다. 그건 영화의 주인공인 소대원들을 다루는 시선도 마찬가지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피아골]과 반대 방향에서 휴머니즘적 접근을 시도하는 영화이다. 영화가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한 군인들의 희생을 예찬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생생한 캐릭터로 그려 영화 속에서 삶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 영화 위에 쌓인 이야기들은 의외로 다양하다. 아마 이 영화를 본 게 관객들은 장동휘나 최무룡처럼 용감한 해병을 연기한 배우들보다 부대원의 마스코트가 된 영희 역의 전영선이나 집안 도움으로 계속 후방에 있다가 총질을 하고 싶어 해병대에 들어온 부잣집 아들 구봉서를 더 강렬하게 기억할 텐데 그건 영화가 전쟁의 목적인다는 우선순위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이야기와 캐릭터를 자유롭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최전방에서 군인들의 마스코트가 된 여자아이의 설정은 인위적으로 느껴지지만 비슷한 일은 실제로 있었다. 잔 울카이의 2018년 작 [아일라]의 설정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도입부와 비슷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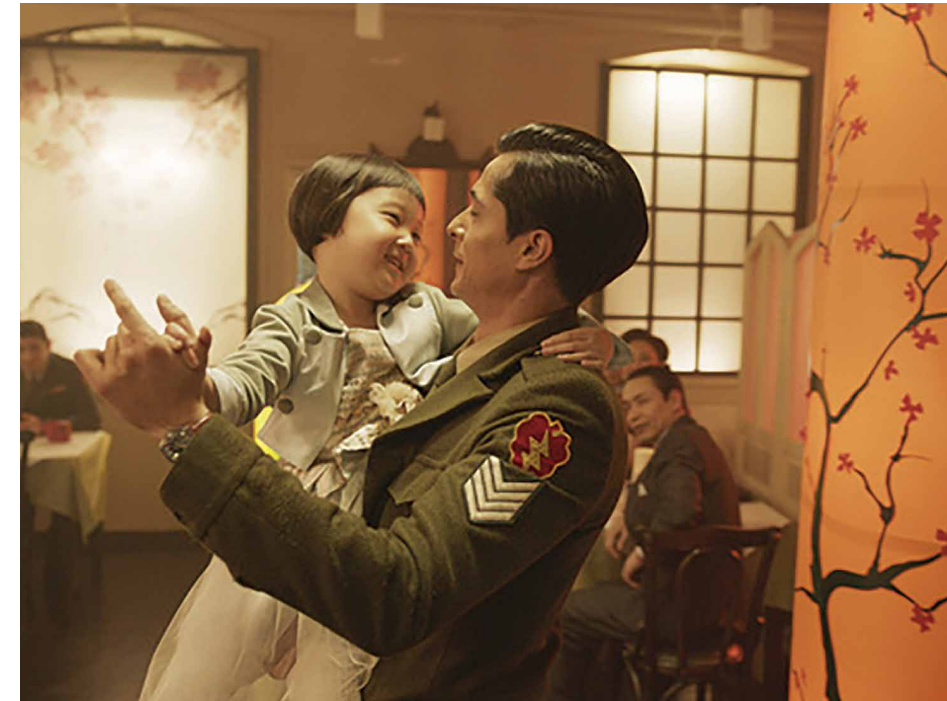
하나. 실화이다. 둘.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다섯 살 여자아이를 구한 건 터키 군인 술레이만이다.

그러니까 종종 실화는 허구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예로 사용될 법한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경우는 멜로드라마틱하다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겠지만, 술레이만은 자신이 구출해 아일라라는 이름을 붙인 아이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 몰래 터키로 데려오려 하지만 발각되고 만다. 이들은 몇십 년 동안 헤어지지만 결국 재회한다.



3) 『돌아오지 않는 해병』 포스터

[아일라]는 관객의 누선(淚腺)을 자극하는 감상적인 대중영화이며 딱 그 높이에 머문다. 하지만 영화가 터키와 한국을 다루는 방식은 과거의 할리우드 한국 영화보다 훨씬 좋다. 한국은 한국처럼 그려지고 두 나라 사람들의 관계도 사실적이다. 무엇보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한국전이 수많은 나라에서 온 병사들이 함께 싸운 국제전이였다는 당연한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4) 『아일라 전쟁의 딸』 장면 중

"Dads live to keep their promises with their children."

총칼보다 더 치열했던 소리 없는 전쟁, 삐라



삐라의 의미

삐라는 전단·벽보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빌(bill)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빌(bill)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 발음으로 비라(bira)가 되었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삐라가 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삐라를 찾아보면 전단을 참고하라 하고, 전단을 찾아보면 '선전이나 광고 또는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쪽'이란 뜻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를 걷다가 종종 받기도 하는 전단지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6·25전쟁 시기 삐라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데, 우리 편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항복을 유도하는 심리전의 도구로서 크게 활약한 것입니다. 심리전이란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을 말합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과 UN군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은 각각 전쟁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 때 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삐라입니다. 그래서 삐라를 다른 이름으로 심리전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심리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삐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군은 최대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UN(국제연합)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UN군 파병을 결의하였습니다. UN군에서 심리전을 담당한 곳은 미 육군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의 심리전과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4일째 되던 6월 28일, 미 극동군 심리전과에서는 무려 1176만 장이나 되는 엄청난 삐라를 처음 제작·살포하였습니다. 살포한 삐라의 수는 1950년 10월 말에 1억 장, 1951년 1월 26일에 2억 장을 돌파했으며 11월 말에는 8억 장을 넘어섰습니다. 전쟁 동안 살포한 삐라의 수는 무려 25억 장 이상이었습니다. 이 삐라들은 주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뿌렸는데 당시 미 국방부장관 프랭크 페이스는 “적을 삐라로 물어버려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이러한 심리전을 적군 와해 공작

· 글 SE&T 송일근 팀장

(적공)이라고 표현하였고, 각각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정치국과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부가 이를 총괄하였습니다. 또 각 예하 부대별로 적공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원을 두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전쟁 동안 3억 장 정도의 삐라를 뿌렸는데, 주로 포탄으로 살포하거나 전선에서 적을 만났을 때 직접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공권을 UN군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 25전쟁 시기 사용한 삐라들

심리전의 목표는 전쟁 상황에서 상대방 전력을 심리적으로 약화하는 것입니다. 6· 25 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삐라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이간질하기 위한 내용의 삐라가 있습니다. UN군은 공산 독재를 비판하는 한편 소련과 중국을 북한과 이간하거나 북한군의 장교를 북한군 병사와 민간인들을 이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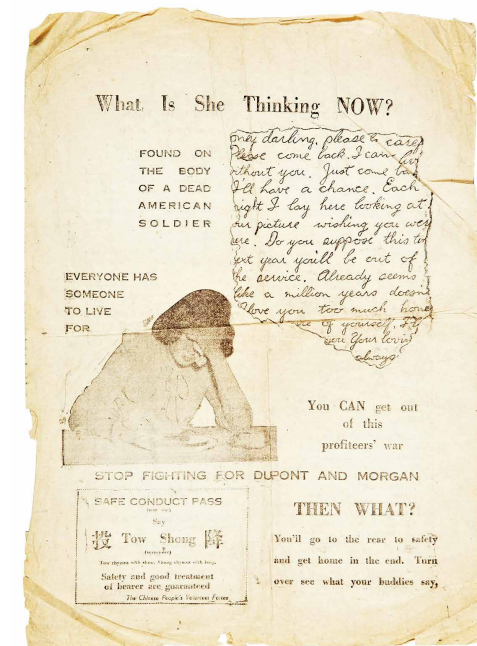
위의 삐라들은 북한의 병사들이 소련과 중공의 이익을 위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선전하는 한편 북한의 물자 또한 중공으로 빼돌려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살포한 이 삐라에는 심리전의 도구로서의 삐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전제의문'을 잡은 북한 측의 손은 사람의 손인데 비하여 이를 불태우는 미국의 손은 짐승의 손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을 정전(휴전)에 반대하는 전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는 정전제의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에 경악하는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을 넣어 이간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보면 북한이 더욱 정전에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전황이 북한 쪽에 매우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은 불리한 전황을 이와 같은 선전·선동을 통해 자기 쪽에 유리한 여론이 만들어지게끔 한 것입니다.

이 삐라는 중국인들이 땀 흘려 키운 농산물과 캐낸 자원들이 소련으로 빼돌려지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는데 중공과 소련을 이간시키기 위해 만든 삐라입니다. 중공의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연합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는 삐라를 많이 살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합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에서 이탈시키려 한 것입니다. 한편 전쟁의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삐라도 많이 살포하였습니다. UN군은 우세한 전황을 알리는 삐라를 살포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북한 민간인들의 협조를 얻어내려 하였습니다. 특히 《낙하산 뉴스》와 《자유세계주간신보》와 같은 신문 형식의 삐라는 국제 정세에 어두운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양쪽이 가장 많이 살포한 삐라는 귀순과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전력이 불리했던 북한군은 무엇 보다는 연합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삐라를 많이 살포하였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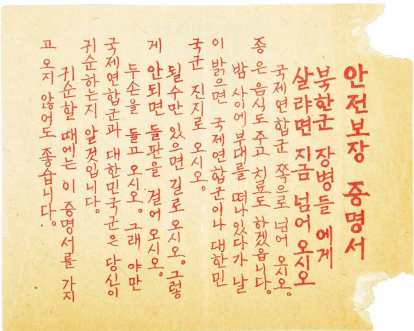
한국군과 UN군도 이와 같은 삐라를 많이 살포했습니다.



특히 물자 부족까지 겪고 있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실상을 지적 하면서 귀순하는 경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 하기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귀순과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투항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삐라도 많이 제작되었으며, 아예 통행증 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삐라 제작을 전담한 미 육군 극동군사 령부 심리전과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하였 습니다. ‘하나, 언제나 UN의 이름으로 말할 것. 둘, 북한의 침략에 따라 일어난 충돌임을 다룰 것. 셋,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용어로 공산 주의를 공격할 것. 넷, 단순한 표현과 구체적 주제에 집중하고 쉽게 표현할 것’과 같은 내용 입니다. 심리전을 수행할 삐라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삐라의 효과

이처럼 치밀한 의도를 갖고 제작한 삐라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6·25 전쟁 초기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피난 가지 못한 남한 주민들은 삐라를 보면서 UN군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 다. 반대로 북한군은 매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1950년 10월 북한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737명의 포로 가운데 742명 (42.7%)이, 11월에 한 조사에서는 1,287명의 포로 가운데 334명(25.9%)이 삐라를 이용했다 고 합니다. 특히 안전보장증명서 형식의 삐라는 포로로 잡힌 대부분의 적 병사가 갖고 있었고 심지어 공산당의 하급 간부들까지 이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 그 효과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이처럼 삐라는 6·25전쟁 기간 내내 다수의 주민에게 전쟁 상황 등 중요한 뉴스를 알리는 역 할을 하면서, 상대방을 와해시키는 효과적인 심 리전 도구를 크게 활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삐라의 신고와 보상

6·25전쟁 이후에도 남북은 경쟁과 대립을 이어 나갔고 수많은 삐라가 살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 규칙’을

만들어 삐라 신고자에게 포상하였습니다. 국민 학생(지금의 초등학생) 등 나이가 어린 신고자 에게는 연필이나 노트 등을 상품으로 주었고, 성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였 습니다. 그러나 1992년 남과 북 사이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이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경찰이 이 규칙을 폐지하면서 이제는 삐라를 가져가도 포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삐라를 주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규칙이 폐지되었어도 즉시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를 통해 경찰에 연락 하면 삐라를 처리할 수 있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이 신고자에게 직접 폐기를 요청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바로 폐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삐라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특히 신기한 마음에 삐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 등은 나중에라도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그리고 SNS의 유행과 함께 이제 삐라는 예전의 위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 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여론전이 한 예 입니다. 이러한 심리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나라와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전국의 주요 전적 기념관

6·25전쟁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장소하면 많은 분들이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떠올립니다. 이곳 외에도 전국 지역마다 6·25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수많은 전적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영령의 숨결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주요 전적지와 기념관 6곳을 추천드립니다.

·글 선양팀 김서연 주무관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특별전시관 및 상설전시관을 만들었으며 또한, 납북피해 가족들이 기증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전시납북 피해자의 문제를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거를 되짚어 보며 납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자 합니다.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 대한민국의 국민 이자, 우리의 소중한 가족, 이웃이었던 납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무사귀환을 기원하 고 미래 지향적인 납북문제 해결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6·25전쟁 당시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셨던 참전용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전쟁사 기념관입니다.
- 6·25전쟁 당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전세를 역전시켜 대한민국을 구해 낸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공간입니다.

찾아 오시는 길	
※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 이용(유료)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사목리 481-1)
대중교통	문산역(경의중앙선 전철) → 058번 버스(임진각행) 환승 → 임진각정류장(6·25기념관)에서 하차
자가용	자유로 이용 시 : 자유로 파주 임진각 방면 → 자유IC 문산 방면 우측으로 진입 → 마정교차로 임진각 방면 우측으로 진입 통일로 이용 시 : 1번국도 통일로 문산판문점 방면 → 마정교차로 임진각로 임진각 방면으로 좌측으로 진입
관람안내	
관람시간	5월 ~ 10월 : 09:30 ~ 17:30(17:00 입장 마감) 11월 ~ 4월 : 10:00 ~ 17:00(16:30 입장 마감)
관람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주중 공휴일, 설·추석 연휴(당일 개관)
대표번호	031-930-6000

찾아 오시는 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 525)
지하철	송도역(수인선) → 8번, 16번 축현초등학교(인천시립박물관) 하차 동막역(인천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 8번 송도유원지(도로교통공단) 하차 주안역(1호선) → 65-1번 축현초등학교(인천시립박물관) 하차
버스	간선버스 : 8번, 16번, 65-1번 : 축현초등학교(인천시립박물관) 또는 송도유원지(도로교통공단) 하차 9번, 111-2번 : 송도유원지(도로교통공단) 하차 지선버스 : 523번 : 축현초등학교(인천시립박물관) 또는 송도유원지(도로교통공단) 하차 광역버스 : 3001번(경기)/9200번 : 송도유원지(도로교통공단) 하차
자가용	제1·2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끝 지점 → 송도유원지 방향 이정표 → 송도유원지 → 로터리를 돌아 올라오면 됨 인천공항 : 인천대교에서 옥련IC → 송도유원지에서 로터리를 돌아 올라오면 됨

관람안내

관람시간	09:00 ~ 18:00(17:30 입장마감)
관람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공휴일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대표번호	032-832-0915



다부동전적기념관

- 다부동전적기념관은 북한의 6·25 기습남침으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처했을 때, 불퇴전(不退轉)의 투혼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구국(救國)의 현장”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극을 겪지 않도록 실천적 결의를 다지는 곳입니다.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
대중교통	· 칠곡군 동명면에서 버스(칠곡3번, 0번, 25번) - 약 15분 소요 · 구미에서 버스(61번) - 약 40분 소요 · 왜관역에서 버스(0번, 25번) - 약 35분 소요
자가용	중앙고속도로 다부IC에서 약 100M, 왜관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소요, 대구칠곡에서 승용차로 약 30분 소요 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다부IC → 기념관 국도 : ① 대구칠곡 → 칠곡군 동명면 → 기념관 ② 왜관을 → 학산리 → 기념관 ③ 군위·의성 → 가산면사무소 → 기념관

관람안내

관람시간	하계(3월~10월) : 09:00 ~ 18:00 동계(11월~2월) : 09:00 ~ 17:30
관람료	무료
휴관일	설·추석 명절
대표번호	054-973-6313





박진전쟁기념관

• 박진지역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낙동강을 도하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던 북한군과 미군이 2주간 사투를 벌였던 격전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차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한 북한군은 일거에 38선을 돌파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후 한강을 넘어 남으로 침공을 계속하였고 이에 국군과 유엔군은 힘을 모아 혈전을 거듭하면서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군사력이 열세하여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계속하다가 개전 40여 일이 경과한 8월초에서야 마침내 낙동강을 끼고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더 물러설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왜관-상주-영덕을 잇는 전선은 국군이, 현풍-창녕-진동을 잇는 전선은 유엔군이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진 지역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낙동강을 도하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던 북한군과 미국인이 2주 간 사투를 벌였던 격전지입니다.

• 당시 북한의 최정예부대인 제4사단이 8월 5일 야간에 이목나루터를 이용, 은밀히 기습 침투함으로 강변을 방어하고 있던 미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8월 11일에는 영산면까지 침공당하기도 했으나, 9월 15일까지 일진일퇴의 치열한 혈투를 전개하여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끝까지 이 진지를 사수하였습니다.

• 전투의 승리로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을 건너 반격하게 되었으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한국전쟁사에 길이 빛날 중요한 전적지입니다.

찾아 오시는 길

※ 배차 간격 확인 필요

주소	경남 창원군 남지읍 월상길 27
버스	월상 : ① 남지-박진, 남지-영신버스터미널, 남지-월평, 영산-박진, 영산-월평 ② 남지-영신버스터미널, 박진-남지, 박진-영산, 박진-영신버스터미널, 월평-남지 월하 : ① 남지-영신버스터미널, 박진-남지, 박진-영산, 박진-영신버스터미널, 월평-남지 ② 남지-박진, 남지-영신버스터미널, 남지-월평, 영산-박진, 영산-월평

관람안내

관람시간	매일 09:00 - 18:00(17:00 입장 마감)
관람료	무료
휴관일	공휴일 다음날, 설 추석 연휴, 1월 1일
대표번호	055-530-1511



백마고지 기념관

• 백마고지 전투에서 희생된 아군과 중공군의 영혼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기념의 장', '회고의 장', '다짐의 장'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처절했던 격전현장을 재현하고 높이 22.5m의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 '회고의 장'에는 피아 전사지를 추도하는 위령비와 분향소가 '기념의 장'에는 통일의 염원과 전승을 기념하는 전적비와 함께 당시 백마부장이었던 김종오 장군의 유품을 전시한 기념과 배치하였습니다.

• '다짐의 장'에는 전망대와 함께 자유의 종각도 건립하여 오늘날은 국민의 안보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1길 72
대중교통	(기차) 백마고지역 경원선 → (버스) 백마고지역 : 대마리(62006)에서 하차 후 도보 14분

관람안내

백마고지역 출발 안보투어			
휴관일	매주 화요일, 1월 1일, 어린이날, 명절연휴(설날, 추석), DMZ 평화마라톤대회일		
운영방법	동두천역앞 버스정류장에서 동두천~백마고지역 버스탑승		
투어 운영 시간 및 노선	① 출발시간(하루 2회) : 10:30 / 14:00(월·수·목·금·토·일) ② 동두천 버스정류장출발(직행) : 9:26 → 10:21, 12:07 → 13:02		
소요시간	약 3시간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백마고지역 관광안내소에서 시설사용료 및 셔틀버스 티켓을 구입하신 후 셔틀버스에 승차하여 정해진 시간에 출발		
셔틀버스 요금	일반인 : 8,000원	어린이 : 6,000원 (6세미만 무료)	
	청소년 : 7,000원	경로(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1~3급) : 6,000원	※ 문의 : 033-450-568
대표번호	033-450-5559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이 문산호를 타고 남정면 장사리 해안에 상륙하여 국도 제7호선을 봉쇄하고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도운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 '20. 6. 1. 개관 예정

주소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74-2
버스	장사리 : ① 영덕-사암 ② 영덕-부경온천, 영덕-사암, 영덕-장사
자가용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34번 국도-안동 방면) → 안동 → 진보 → 영덕(7번 국도-포항방면) → 강구 → 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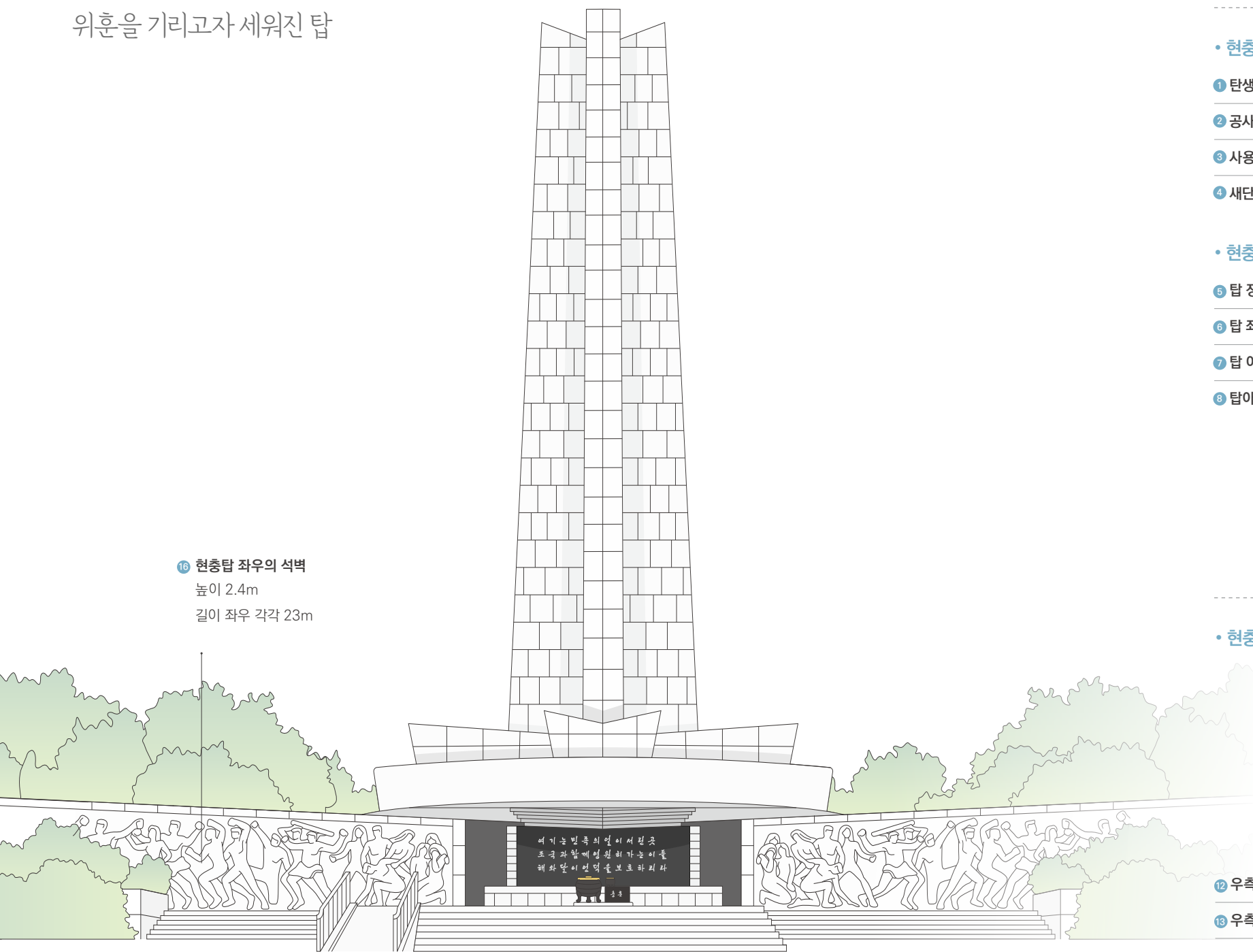
관람안내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17:00 매표 마감)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16:00 매표 마감)				
	구분	정상 관람료		감면 관람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성인	5,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중, 고등학생 및 군인	4,000원	2,000원	2,000원	1,500원
	초등학생	3,0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휴관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대표번호	054-730-7315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현충탑

현충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세워진 탑



16 현충탑 좌우의 석벽
높이 2.4m
길이 좌우 각각 23m

각 국립묘지의 현충탑

현충탑은 국가의 성역인 국립서울현충원을 상징합니다. 현충탑은 국립서울현충원뿐만 아니라 대전현충원 및 각 호국원에도 국립묘지의 상징으로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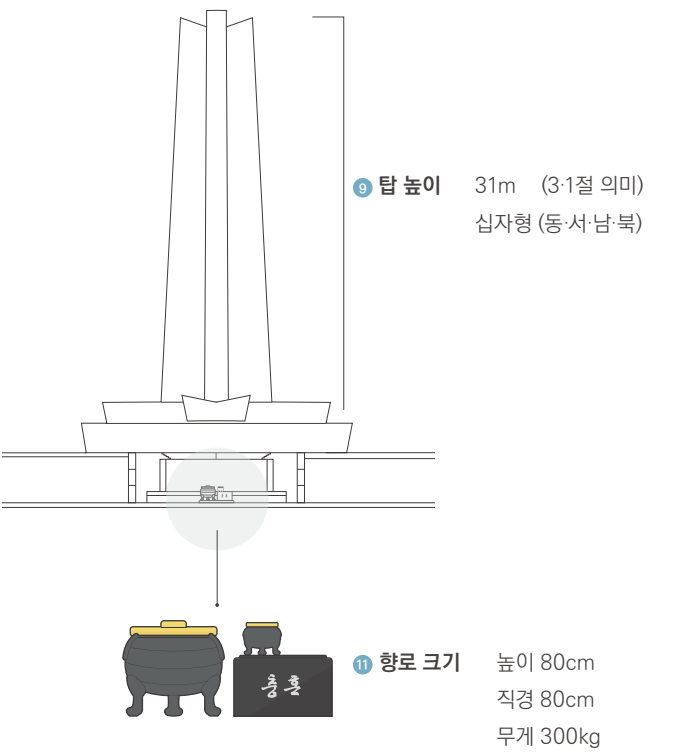
국립대전현충원 | 국립이천호국원 | 국립괴산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 | 국립임실호국원 | 국립산청호국원

• 현충탑 정보

1 탄생일	1967년 9월 30일
2 공사기간	1년
3 사용공법	화강암 돌붙임 공법
4 새단장	2010년 3월 ~ 5월

• 현충탑 세부정보

5 탑 정면	제단, 향로, 향합대, 현충시
6 탑 좌우	제사 뒤편에 쳐 놓는 병풍을 상징
7 탑 아래 내부	위패봉안관
8 탑아래 중앙	영현승천상



• 현충탑 석벽 정보



12 우측 석벽	6.25전쟁, 4.19의거, 조국건설, 영광, 애도 상징 조각
13 우측 석벽 끝	5인의 호국영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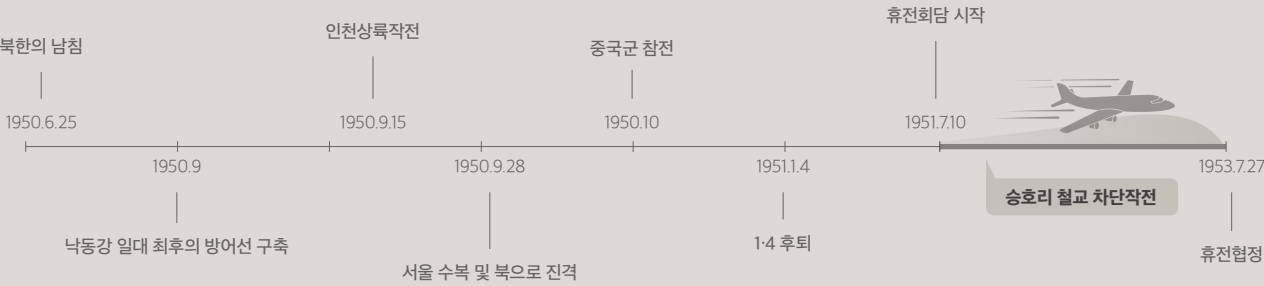


14 좌측 석벽	항일운동, 8.15광복 상징 조각
15 좌측 석벽 끝	5인의 애국투사상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한국 공군은 북한군 주요 후방보급로였던 승호리 철교를 폭파했다. 수차례에 걸친 미군의 출격에도 실패했던 임무를 한국 공군이 맡아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신생 한국 공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적과 아군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우리군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출처 : 월간 공군 4월호 <6·25전쟁 70주년 공군사 인포그래픽 시리즈>
세부 내용은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www.afzine.c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월초
폭파실패·임무 인계**

미 제5공군은 전투기들을 수없이 출격시켰으나, 폭파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공군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임무를 인수한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신 대령은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한 김두만 소령에게 승호리 철교 차단 임무를 부여하였다.

**1월 12일 14시 00분
승호리 철교 2차 출격**

같은날 14시에도 제1편대장 윤응렬 대위와 제2편대장 옥만호 대위의 2개 편대가 승호리 철교를 향해 출격하였다.

1차 출격과 같이 승호리 철교에 폭탄과 로켓단으로 공격하였으나, 결국 파괴하지 못한 채 강릉기지로 귀환하였다.

**1월 15일 13시 00분
4차 최종 공격**

오후에는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기협 대위 편대가 출격하였다. 오전 편대에 의해 차단된 다리 중간에 교각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최종공격했다.

임무를 완수한 F-51D전투기 편대는 강릉기지에 무사히 귀환하였다.

**1952년까지
후방 보급로의 요충지**

북한군과 중공군은 경의선과 만포선을 통해 군수물자를 평양으로 수송하였고, 이를 서부와 동부전선으로 보급하였다.

승호리 철교는 평양 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하며, 군수물자를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하는 적 후방 보급로의 요충지였다.

**1월초
승호리 철교 폭파 및 신설**

미 제5공군은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승호리 철교를 폭파차단하였다.

그러나 북쪽 200m지점을 우회하여 가설된 새로운 철교는 주위에 대공 방어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폭격이나 기총탄 공격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1월 12일 07시 40분
승호리 철교 1차 출격**

07시 40분에 강릉기지를 이륙한 6대의 F-51D 전투기는 편대장 김두만 소령 지휘하에 대관령을 넘어 평양 상공으로 출격하였다.

적의 대공포화에 회피기동하며 500파운드 폭탄 12발을 투하하였으나, 철교 주변의 모래와 물속으로 떨어져 폭격효과가 없었다.

**1월 12일 이후
전술적 문제 논의**

제10전투비행전대장은 휘하 지휘관 및 참모와 전술적 문제를 논의하였다.

8,000ft 고도에서 강하하여 3,000ft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대신,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4,000ft 고도에서 강하하여 1,500ft 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저고도 공격방법을 택하였다.

**1월 15일 08시 25분
승호리 철교 3차 출격**

제1편대장 윤응렬 대위와 제2편대장 옥만호 대위의 2개 편대가 이륙하여 승호리 철교 상공으로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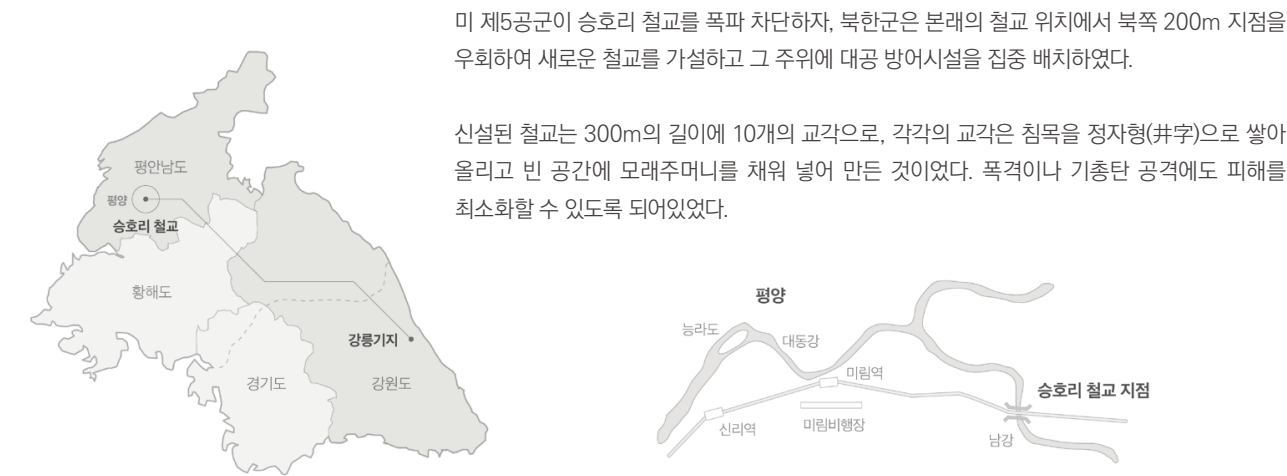
제1편대가 제2편대의 엄호하에 공격을 가했고, 이에 2개의 경간이 부서지며 철교 중앙부분 두 곳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며 폭파에 성공했다.

**2월 21일
승호리 철교차단작전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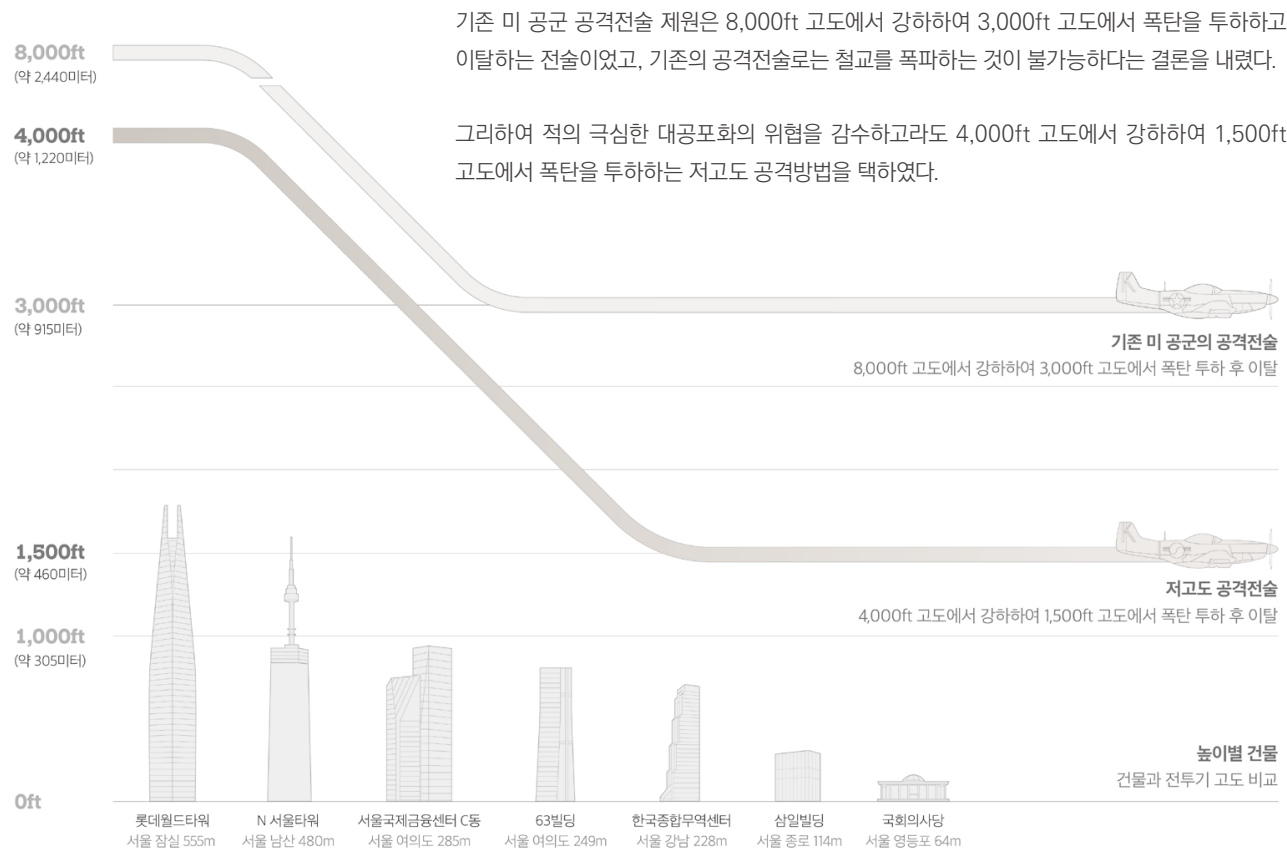
작전 결과는 미 제5공군 휘하의 비행단장 및 전대장 회의에서 소개되었고,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신 대령은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공군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는 구국일념과 감투정신에 기인한 저고도 공격전술로 이룬 성과였다.

폭파 후 다시 가설된 승호리 철교



적의 위협을 감수한 저고도 공격방법과 높이 비교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의 영웅들

승호리 철교 1차 출격 (6소티)			승호리 철교 2차 출격 (6소티)		승호리 철교 3차 출격 (6소티)		4차 최종 공격 (5소티)	
편대장 김두만 소령			제1편대장 윤응렬 대위	제2편대장 육만호 대위	제1편대장 윤응렬 대위	제2편대장 육만호 대위	편대장 이기협 대위	
장성태 대위	김금성 대위	이기협 대위	주영복 대위	유치곤 중위	정주량 대위	유치곤 중위	김금성 대위	주영복 대위
전봉희 대위	Largo 중위		정주량 대위	박채호 대위	장성태 대위	박채호 대위	전봉희 대위	손흥준 중위

승호리 철교 폭파임무에 출격한 F-51D 전투기

6·25 전쟁 발발 당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로켓포와 대전차포로는 남하하는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다. 또한 공군에서 보유 중이던 T-6 항공이나 L-형 항공기로도 적 전차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적의 T-34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5인치 로켓포나 250KG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였고, 대한민국 공군은 1950년 7월 2일에 미군으로부터 F-51D 전투기 10대를 인수하였다.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의 의의

대한민국 공군의 공격 성공	6·25 전쟁 속 승리의 밑거름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저고도 공격전술을 두려워 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높은 전투의지는 전쟁기간 내내 공군의 정신이 됐고, 공군의 작전능력과 전력신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6.25전쟁 관련 서울현충원 기념비와 헌시

재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 위령비

재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 위령비는 장병 묘역의 16번 묘역(재일학도의용군 묘역)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963년 11월 21일 일본 도쿄 다이교지(大行寺)에 안치되어 있던 50위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 후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 민단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그들의 넋을 추념하고자 1973년 6월 6일 건립하였습니다. 6.25전쟁 때 642명의 재일 교포학생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용군을 조직해 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참전의 의무가 없는데도, 이들은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남긴 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지원자 1000명 가운데 642명이 선발되었고, 위험한 전투에 앞장서서 서울탈환작전, 백마고지전투, 원산·이원상륙작전, 갑산·혜산진탈환작전 등에 참가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그들의 넋을 추념하고자 위령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비의 뒷면에는 이곳에 안장된 재일학도의용군 50위·장교 2위 위패봉안관에 봉안된 90위의 명단이 새겨져 있고, 앞면에는 아래와 같은 헌시가 새겨져 있다.

"내 나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젊은이들
역사의 책장 위에 꽃수를 놓으셨네
조국의 포근한 흙속에 웃으며 잠드옵소서"



재일학도의용군전몰용사위령비



학도의용군 무명용사 위령탑

학도의용군 무명용사 위령탑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좌측으로는 하나의 위령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 위령탑입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약 5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이 구국전선에 뛰어들어 포항 지역을 비롯한 각 지구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7,000여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신이나 무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포항전투에서 중대급(48명) 규모의 학도의용군이 북한군 전초 부대를 맞아 분투하다가 전몰, 포항여자중·고등학교 부근에 가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1963년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묘지에 안장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국군묘지 1번 묘역에 안장하였다가 1968년 4월 지금의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으로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유격부대 전적 위령비

유격부대 전적 위령비는 서울현충원 동쪽 순환도로 입구 배롱길 위(솔내길 끝)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유격 작전을 전개하다가 산화한 유격 부대원들의 고귀한 희생과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그 영령들을 길이 추모하고자 국방부 주관아래 세워진 비입니다. 비의 중앙에는 유격 부대원들의 투쟁 모습을 그린 조각이 있고, 조각 위로는 당시 유격부대원들이 쓰던 것과 같은 철모와 소총이 걸려 있습니다. 비의 앞면 우측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격부대 전적 위령비

"한국전쟁 중 자유와 평화를 위해 북한 지역 곳곳에서 유격작전을 전개하다가 조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유격 부대원들의 고귀한 희생과 빛나는 업적을 기리며 그 영령들을 길이 추모하기 위해 여기에 이 비를 세운다"

육탄10용사 현충비

서울현충원 6번 묘역 앞에는 육탄 10용사 현충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육탄(肉彈)은 '몸을 탄알로 삼아서 적진이나 탱크 따위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육탄 10용사는 6.25전쟁 발발 이전 남과 북이 38선을 경계로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군에게 불법 점령당한 개성 송악산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포탄을 안은 채 적진에 뛰어들어 진지를 분쇄하고 산화한 10명의 군인을 말합니다. 탑에는 'THE TEN BRAVE WARRIORS' 라는 영문 표기와 함께 육탄 10용사의 계급과 성명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육탄10용사 위령비

육사 7기 특별동기생 추모탑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뒤편 공원에는 원형의 고리를 밟고 양팔을 벌린 채 늠름하게 서 있는 군인 동상이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6·25전쟁 중 구국 전선에 뛰어들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육사 7기 특별 동기생 전몰 용사들의 숭고한 녀과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탑 안에는 동기생들의 유품과 기념품, 사진 등을 함께 봉안하고 있고 탑 하단 전면에는 6·25전쟁 때 사용한 철모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탑 후면에는 헌시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랑캐 무찌르며 돌진하던 그대들
이 나라는 건져 놓고 저는 정착 못 돌아오고
충혼이 한 줌의 흙으로 이 가슴에 누었나
그대들 푸른 녀이 가슴마다 살아 있네.
못 이룬 그 바램을 오늘도 되새기며
아쉽고 그리운 정으로 돌 하나를 세운다"

포병장교 충혼비

유품전시관 오른쪽에는 비석 위에 포를 얹은 충혼비가 있습니다. 바로 포병장교 충혼비입니다. 이 비는 6·25전쟁 중에 포화를 뚫어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전몰 포병장교 340명의 녀과 공로를 위로하고자 포병 출신 장교들의 찬조를 받아 1964년 6월 25일 건립하였습니다.

"여기 포화를 뚫어 조국을 지킨 포병 용사들
고요히 잠드시라"

50년 현지임관 전사자 추념비

국군 창설 초기에 자원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많은 군인들이 6·25전쟁이 발발하고 현지 임관되었습니다. (현지 임관 : 전시와 같은 비상시에 장교 자원이 부족해졌을 경우 선임 병사나 부사관 등을 바로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 현지 임관 장교들 가운데 377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순직하였습니다. 많은 공을 세우고 나라를 지켜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희생이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잊혀져 가는 이들의 희생을 영원히 추모하고자 1950년 현지 임관 생존 회원들은 추모비를 위한 성금을 모금하였고, 1971년에 기념비 건립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념비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좌측 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비 전면에는 다음과 같은 헌시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임들은 나라의 부름을 입어 창군하고
순국으로 침략을 막아 청사에 그 충의를 새기니
오늘은 겨레의 변영 내일은 조국의 통일을 보리라"



1 육사7기생 특별동기생 추모탑
2 포병장교 충혼비
3 50년 현지임관 전사자 추념비

현충원 소식

국립서울현충원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국립서울현충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정부 및 국방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현충원 복무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인 충혼당, 봉안식장 및 만남의 집 등 유가족 및 방문객 접촉지역에 수시 소독과 원내 주도로 1일 1회 차량 방역 등 원내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현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여
유가족과 방문객 여러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패봉안실 개별형위패 전환 사업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봉안실에는 국가를 위해 전사·순직하신 분 중, 유골이나 시신을 찾지 못한 유공자의 계급·성명이 고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해발굴사업 등으로 유골을 찾은 경우 위패의 성명을 삭제하기도 하고, 전쟁 당시 작성된 전사자 명부에 오류가 발견되면 계급·성명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얇은 아크릴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보수 자국이 다소 남게 되고, 세월이 거듭될수록 보수의 흔적이 쌓여서 고유의 품격을 점점 잃어 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은 기존의 '일체형위패'를 '개별형 위패'로 전환하는 사업을 '19년부터 시작하여 전체 52판 중 26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 18판, 2021년에 8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갈하고 통일성있게 유공자 위패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참 잘되었다는 유가족 및 관련 보호 단체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일체형 위패



개선된 개별형 위패

바뀌는 보훈 정책, 보훈 정책의 미래

국가보훈처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하여 보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 대한 감사 행사, 기념관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등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 가족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이 확대되고 의료, 요양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많은 정책들 중에서 보훈 가족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20년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이번 정책으로 국가유공자별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보훈급여금 종류	19년의 경우	20년의 경우	비고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25만 7천원~128만 3천원 45만 2천원~166만 4천원	27만원~134만 7천원 47만 5천원~174만 7천원	5% 인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30만원 36만원~38만원 31만 1천원	32만원 38만원~40만원 33만 1천원	월 2만원 인상
상이 1~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76만 3천원~238만 7천원	80만 1천원~250만 6천원	5% 인상
상이 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	45만 3천원	48만 2천원	1.5% 추가 인상
전몰, 순직군경유족 보상금	148만 6천원~175만 4천원	159만원~187만 7천원	2% 추가 인상
6·25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5만원	8만원	월 3만원 인상
생활조정수당	21만원~32만원	21만 4천원~32만 6천원	2% 인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 요양시설 확충

① **감면진료 적용 항목 확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등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참전유공자 본인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감면진료 적용을 받는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감면 진료 대상이 아니었던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로,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등 3가지가 이번에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감면 진료 적용 항목 확대로 연간 171만 명에게 약 30 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보훈병원의 진료환경 개선**
국가보훈처는 2021년까지 약 313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대구, 인천 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전보훈병원의 경우 1997년 개원 후 노후화된 시설을 새 단장하고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 시설 등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대구보훈병원에는 심혈관 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새 단장, 응급실 진입도로 확장 등으로 더욱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인천보훈병원은 응급실 설치, 재활치료실 등을 확충하여 환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③ **원주보훈요양원 개원 예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원주 보훈요양원은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개원 후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1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원주보훈요양원과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개원되면 전국 1,599명의 입소대기자 중 25%에 해당하는 400여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유공자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비용(100만원)을 지원하여 유족 없이 방치되는 국가유공자 묘소가 없도록 예우 지원을 강화합니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시작으로 추진되었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 (7,697명), 민주유공자 (2,266명), 국가유공자 (205,820명)이 대상이며 올해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등 18만 3000명이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됩니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하여 국가 유공자에게는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자랑스러운 명예를 선사 받고, 이웃 주민들과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혼 소식지 — 독자의 소리

구독 후기

최영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6.25전쟁(한국전쟁)에서 부상 당하셨고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혼란한 시기여서 아버님의 군번은 입대할 때 군번과 제대할 때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야 그 사실이 밝혀져 유공자가 되었고, 지금은 영천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국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유가족 으로 호국원과 국립서울현충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의 유아 교육 영상과 청소년 교육 영상 두 가지를 소상히 보았습니다.
손녀, 손자를 위해서 유아용을 보았고 제가 국사 교사 출신이라 청소년 교육용을 더 치중해 듣고 보았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과 함께, 특히 최태성 님이 국립서울현충원 을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 특출해 보였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의 묘역 설명과 활동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가슴 먹먹한 감정도 느꼈고,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장 스케치 행사 사진과 예쁜 신년도 달력, self 참배객을 위한 참배안내, 올해의 일러스트 공모작품과 학생들의 그림 그리기 대회를 보면서 국가 발전에 대한 희망도 마음껏 가지게 되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방학에 손녀, 손자가 오면 서울현충원의 유아 교육영상을 꼭 보여주어 나라와 민족의 중요성을 일찍 교육하도록 약속하면서 독자 후기를 마감합니다.

ㄴ,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늦게나마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미래 세대가 역사를 잊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역사를 안내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호국추모공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소식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충혼,
함께 읽어요"

〈충혼〉이 더욱더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충혼을 읽고 쓴 후기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방법 : 충혼을 읽고, 후기를 solong1004@mnd.go.kr 로 보내주세요.
문의 : 02-811-6333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국립서울현충원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OSTCARD
여러분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그 해
6월의 기억
6·25전쟁
70주년

POSTCARD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POSTCARD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POSTCARD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POSTCARD

여러분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6·25전쟁 70주년 특집
6월 정기음악회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삼시! 십분

6월 4일 [목] 오후 3시 첫방송



6/4, 6/11, 6/18, 6/25 **매주 목요일**
국립서울현충원 **에서 오후 3시 오픈!**

제작 : 국립서울현충원 / 출연 :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 현충원 이용안내 |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우리 겨레의 성역으로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애정을 갖고 돌보며 보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현충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함께 지켜주세요.

참배·개방시간

참배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개방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충혼당 참배	오전 9시 ~ 오후 6시
전시관 관람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견학·영화관람

견학(묘역해설순례), 영화관람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홈페이지	www.snmb.mil.kr
지하철	4,9호선 동작(현충원)역 하차 → 4번 출구(동문 150m) 8번 출구(정문 10m)	버스	지선 5524, 6411 간선 350, 360, 362, 452, 640, 752 광역 9408

• 동절기(11~2월)의 토요일 및 휴일은 전시관 휴관입니다.

• 정문·동문 개방 시간을 감안하여 오후 6시 이전에 참배·방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 동문 현충선양광장, 현충문 옆 이용가능

• 문의 : 교육담당 02-811-6342, 군) 905-6342

| 코로나 예방수칙안내 |



비누와 물로 손을 20초 동안 자주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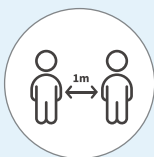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집에 머무르며 자가 격리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나 팔로 코와 입 가리기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아픈 사람과 밀접 접촉
(1미터 이내) 피하기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하기 1339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는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혼〉을 만나보세요.